

또 한 차례 장엄한 행렬이 펼쳐진다. 전국 도로가 주차장이 될 줄 뻔히 알면서 고향으로 향한다. 서러운 기억을 잠시 도시에 묻어두고 설렘의 풍선을 잔뜩 부풀게 하여 고향으로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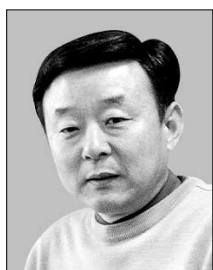
집밖 취급을 받아도 좋다. 고향 행 열차에 몸을 실을 수 있다면 따뜻한 열살을 떨며 갑니다. 고성능 컴퓨터도 해석해 내지 못할 불가사의다. 고향이 뭐길래.

그곳에는 뻔뻔한 지식이 해독하지 못하는 뭔가 있다. 굵은 주름 얼굴에 가득한 부모가 있다. 자식들의 트렁크에 더 넣어주지 못할 안타까워하는 늙은 부모의 사랑이 있다.

빨랫줄이 흩어져 삶의 막장에서 붉은 눈빛으로 살던 벗들이 선한 유년 시절의 얼굴이 되어 모여든다. 산천은 변했지만 그리움과 추억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 고향은 어머니의 자궁이다. 윤색과 가면을 모르던 시절의 초상이다.

그곳에는 험잡과 비난이 없다. 물고 물리는 사슬이 없다. 내 뺨을 때아닐까 눈에 불을 켜지 않는다. 한없이 너그럽고 풍요롭다. 아들딸이 다투어 노모에게 용돈을 찢어 넣어 드리고 오랜만에 만난 유년 시절 동무들은 서로 술값을 내겠다고 다툰다.

그 많은 이기심은 어디로 가고 넘치는 자비가 주체하지 못할 지경이다. 고향에 오면 모두가



### 불자 세상보기

이우상  
소설가 · 대진대 문창과 겸임교수

## 고향 찾기, 아름다운 본능

너그러워진다. 고향에 오면 온색한 일상을 잊는다. 그래서 고향에서는 하나같이 친진불이다.

황토방 같은 고향이란 장치에 몸을 담그면 힘이 솟는다. 삼엄한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다. 삭막한 기계가 되어 서걱거리며 돌아가던 자신을 버리고 조상과 가정을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인간의 피가 돌게 한다. 고향은 우리가 잃고 싶지 않은 추상이다. 날마다 그렇게 살고 싶은 체질 학교다. 자신과 타인에게 너그럽고 좀 더 배필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정신이다. 단번에 몇 십년 세월을 건너뛸 수 있는 굴림판이다.

부끄럽게 살아온 날들을 참회하며 넉넉하고 은유한 본래의 자신을 찾아주는 재생공장이다.

미국 뉴올리언스 사태는 뿌리 깊은 나무와 뿌리 없는 나무의 차이를 선연하게 보여준 교훈이다. 극한 상황에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준 재앙이다. 강제된 규제로 형성된 질서와 오래 묵은 관습으로 이루어진 질서의 차이를 느낀다. 그러나 그들 또한 멀리 있는 이웃이다. 도움의 손길을 뻗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래, 보름달, 한가위는 원융무애(圓融無礙)다. 만다라

다. 걸림과 막힘과 뾰족함이 없다. 남에게 겨룰 것을 버리고 더불어 굴러가라는 은유다.

내 조상, 내 부모, 내 자식이 소중하나 둥근 이웃이 없으면 함께 굴러갈 수 없다. 더불어 사는 지혜를 담아오는 한가위 귀환길에 되어야 할 것이다.

고향에 그리워도 못가는 신세도 많다. 열두 시간 걸려서 고향에 도착했다는 무용담을 부러워하는 이웃도 있다. 그들에게 나눠줄 고향냄새, 그들에게 나눠줄 푸성귀 한 바구니를 함께 가져오는 것도 잊지 말자. 친진불의 모습을 다시 장롱 깊숙이 구겨 넣지 말자.

바라보지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지지,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얼굴로 살아야지. 이번에도 보름달은 어김없이 천 개의 강을 비출 것이다. 강에 비친 달의 모습이 바로 내 얼굴이다. 그 얼굴들로 삶의 막장을 가득 채우자.

민족 대이동은 헌법에도 없는 행사다. 마지막 치루는 시련도 아니다. 차 속에 갇혀 꼼짝 못해도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는다. 가다 서다를 반복해도 목은 수행자처럼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부처가 되어 있다.

기름 가득 채우고 먹을 것 넉넉히 준비해서 고향으로 출발! 아이들과 함께라면 휴대용 번기도 잊지 말도록.

### 불자의 눈

2003년 2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취소된 가야산 골프장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판결이 난지 채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전 권고부 장관까지 포함된 인사들이 지역발전전을 꾀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아마도 주민들을 갈라놓아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일부러 시작할 모양이다.

주민들과 불교계가 가야산 골프장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힘을 합쳐 나섰던, 그러면서도 후폭력에 저서 가야산 일대의 문화유적과 환경을 파괴할 골프장이 들어설까 애태우던 지난날의 악몽이 다시 살아나는 듯하다.

골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그런 인기와 무관하게 국내 골프장 건설은 심사숙고하고 또 심사숙고해야 한다. 게다가 가야산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팔만대장경이 있는 해인사가 위치해있다. 늘 개발이익을 들

## 가야산 골프장 재추진 안된다

러하고 지역공동체가 깨지는 골프장이려면, 과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역발전이라는 허울좋은 명목이 과연 얼마만큼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자체들의 재정확보를 위해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 주어 이미 넘칠 정도로 많은 골프장들이 이미 건설되었는데, 과연 그 골프장이 국민의 건강과 행복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전 국민들을 상대로 물어보고 싶다.

그만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주민들과 환경단체, 불교계가 반대하고 있는 가야산 골프장 건설은 절대 다시 논의되어서는 안된다.

구시대적인 개발논리는 이제 그만 둘 때가 되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겠다는 것은 결국 지역사회의 분열을 획책하겠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혹시라도 그 사이 지난날의 기억이 희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움직임이라면 그 때에 모였던 것보다 몇배 많은 깨어난 눈들이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와 환경단체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불교계도 가야산 골프장 건설 저지도를 원천봉쇄하는 대열에 함께해야 할 것이다.

■ 성대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 이렇게 들었다

#### 공부의 시기

온갖 존재는 한량이 없으니, 학문을 쌓아야 비로소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제법집요경>

배움에는 때가 있다고 한다. 청소년기에 배움에 힘써야 하는 것도 배움의 때를 놓치지 않고 학문의 기반을 다져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공부하고 싶어도 배울 곳이 없는 학생들과 공부할 여건이 충분해 갖춰져 있음에도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에 관한 기사가 나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대전지역 장애인들의 유일한 배움터인 '모두사랑 장애인 야학'은 최근 학교가 입주한 건물 주인이 교실을 비워주도록 요구해 다른 공간을 찾고 있지만, 장애인 출입을 꺼리는 건물주들의 외면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한다.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25~50세의 중증장애인 60여 명은 1~2년마다 옮겨야 했던 집을 다시 싸야한다는 사실에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다. 그들은 주위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잃을지도 모를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에 반해 광주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눈병이 걸리면 집에 가서 쉬 수 있다'는 생각에 일부러 눈병에 걸리려고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유행성 결막염의 원인이 학생들의 '장난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한 학교에서는 눈병에 걸린 학생들을 집에 돌려보내지 않고 학교 도서관에 모두 모아 독서지도도를 시켰는데, 이 같은 조치를 취한 뒤 환자 발생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내가 가진 행복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벌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 내린 하늘계 여겨지는 것이 누군가는 절실히 원해도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안다면, 배움의 기회를 그렇게 쉽게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 여수령(해재부 기자)

###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 총림방장은 명안종사로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중앙총림의 장단에게 영축총림 방장추대권을 임명하게 행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총림 방장은 "수행의 표상으로 종헌종법상에 제시된 선·교·율을 결미한 명안종사로 20만여 명 이상 성만해야 한다"는 기본 조건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물론 총림 방장의 위상을 생각할 때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좌선만을 수행이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수좌회에 있지 않기를 바란다.

영축총림의 방장이 어떤 분이 추대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선원에서 대중들과 더불어 정진해 오지 않으신 분이 방장이 추대되면 안된다'는 말은 단지 행자였던 '육조 혜능'이 '오조 홍인'으로부터 어떻게 법을 이어받을 수 있었는지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다. 마음 닦는 일이 어디 선원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

총림의 방장이 안거수가 부족할 경우 물론 수좌를 제정할 경험도 부족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선원에 오레 살았다는 것만으로 기득권을 장악하려는 것은 선의 정진을 손상하는 일이다.

방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분이 명안종사가 아님을 주장한다면 모르지만 선원에 주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것은 그

동안 한국불교를 이끌어 왔던 수좌회 답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 무애식(롯데뉴스)

#### 경주 핵폐기장 안될 말

얼마전 경주시의회가 경주에 핵 폐기장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9월 7일에는 정부의 부지선정위원회가 경주 양북면 일대의 현장조사까지 벌였다고 한다. 각종 환경시민 단체는 물론 13개 주민대책위가 나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경주시가 위험천만한 핵 폐기장 건설 유치에 나서고 있다니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직까지도 핵 폐기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이지 않고, 인근 울산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핵 폐기장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이 경주를 떠올릴 때 불국사 석굴암이 아닌 핵 폐기장이 있는 곳이란 인식을 심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주시가 민족의 유산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교계가 나서서 아무런 대응을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은 석굴암 부처님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다. 불국사를 비롯한 지역의 사부대중들을 경주시가 유지하려하는 핵 폐기장 건설을

결사반대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

더구나 핵 폐기장이 들어선다면 수십년간 지속되어야 하는 관광산업은 황폐해질 것이 뻔하다. 아직도 안정성 논란이 그치지 않는 핵 폐기장이 건설이 된다면 우리는 역사에 가장 잔인한 만행을 저지른 국민으로 기록될 것이며 세계적 비난 여론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경주에 핵 폐기장이 들어서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 이진호(경북 경주시 석장동)

#### 친일청산 촛불집회 동참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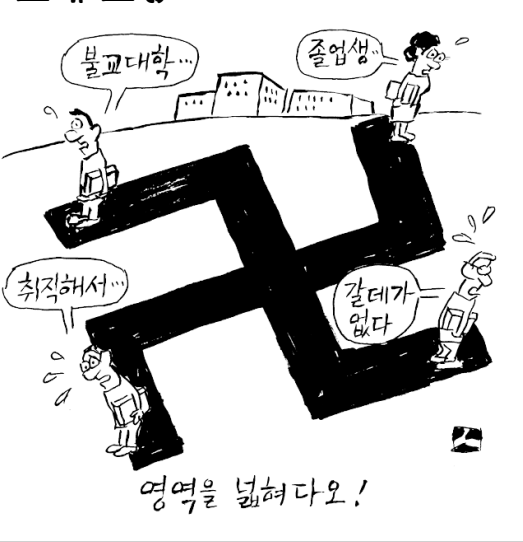
친일파 후손들의 내연인 땅찾기 소송 기사를 접하고 친일반민족특별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더구나 9월 13일 조계사에서 열리는 불교계의 촛불집회를 계기로 특별법이 국민들의 열원으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의 독립정부는 법통을 계승한다.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의 후손이 조상들의 재산을 환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전혀 어긋나는 일이다.

해방 60주년이 지났음에도 '친일청산'을 이야기해야 하는 부끄러운 2005년을 사는 우리가 해방 100년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친일청산'을 이야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 보라(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 '연대' 민평

심민섭



영역을 넓혀다오!

##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중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중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 책가내용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중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계의 상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중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벽중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가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기때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왕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예연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례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가내용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태어날 때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장으로 장례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족지정기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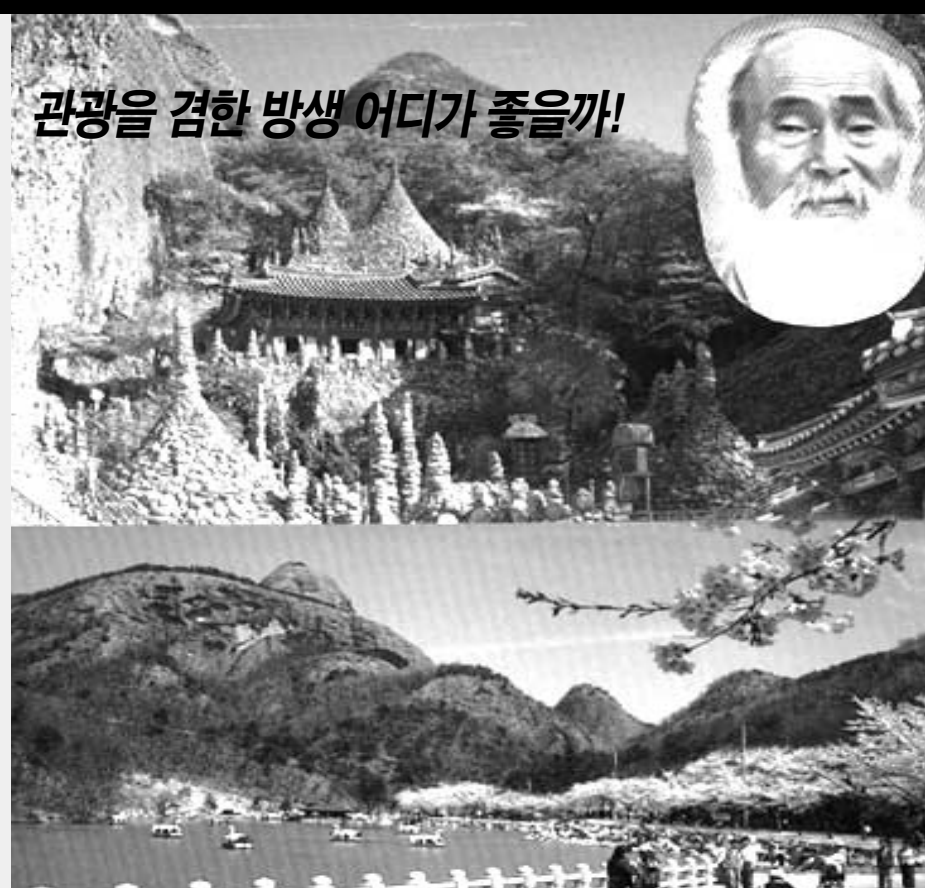
###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 성지관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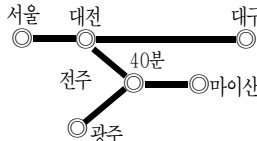
##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 신비의 마이산 탐사 탐영제 방생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탐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탐사  
063) 433-2900, 0303  
432-0652, 0072